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성진



지난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 COP15)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1차 온실가스의무감축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의 감축목표와 의정서체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뒤집어놓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 지구를 덮칠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C 상승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구 전체를 통하여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체결된 이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은 여전히 늘고만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지난 해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은 41%나 증가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만도 증가율이 연 평균 3.4%에 이른다. 각국의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자탄소산업과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국가는 득일 등 몇 개 나라에 한정되었고,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각국이 자기 입장은

내세우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온난화를 유발시키며 얻는 산업화 이익과 기후피해가 불평등하다는 점에 있다. 선진국이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작은 빈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떠안은 채 갈수

온난화의 불평등, 한국은?

록 심해지는 빙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신 흥 개도국의 경우도 선진국과 같은 기준의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공평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온난화가 자신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이번 코펜하겐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가 지구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2°C가 아닌 1.5°C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법적 감축의무를 지는 새로운 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국가들과 일부 아프리카·빈민국들이 이에 즉각 동조하면서 큰 파란이 일고 있다. 그들의 이유는 절박하다. 총인구가 만여 명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섬나라는 그들과 무관

한 면 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비슷한 위기에 처한 다른 군소 섬나라들 역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도 온실가스배출량은 지구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은 극심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급격한 산악화와 가뭄, 그리고 홍수피해로 인해 수천만 명이 사生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희생자만도 1억6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빈국의 사정과는 달리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은 개도국은 급속한 경제개발로

과 동시에 배출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나라로서 이제 더 이상 온난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개도국 중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니 들판 중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반기기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자발적으로 감축은 하되 성장에 필요한 만큼 배출한다는 매우 이중적인 전략을 세웠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자발적 감축이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의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목표치는 COP15 공동대응단이 요구한 25% 이상 감축에 턱없이 부족한 물론, 중국이 발표한 40~45% 감축안과 비교해서는 감축이란 말을 쓰기가 무색해질 만한 수치이다. 이것이 과연 지난 백 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22번째로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취할 선도적 자세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래를 향한 에너지와 산업체제전환은 정부계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이 온난화문제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당연한 자기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유치하고 토목사업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정치기술이 아니라, 온난화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진정성 있는 의지와 자기 변화의 노력이다.

〈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흥행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필순



지난 금요일, 광주시 북구 일곡 도서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일곡동 뒷산인 ‘한새봉’ 자리에 천수단이 있는 데, 이곳에서 녹색연합과 한새봉숲사랑이, 한살림 등의 단체와 50여 가정이 함께 벼농사를 지었다. 800여 평에서 쌀 1천200kg을 수확했는데, 경작한 분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는 행사였다. 수확한 쌀로 떡도 먹고, 음악회도 함께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일곡동에서는 ‘개구리논’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한새봉 개구리논’에서 함께 꿈을 꾸다

이 논은 일곡동 한새봉 산책로 입구에 계단식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본래 일곡마을의 노씨 어르신이 30년 넘게 농사지어온 논이었다. 지난해부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짓기 힘드시던 터에 줄곧 한새봉과 논습지를 지켜보던 한새봉숲사랑이 녹색연합이 주민들과 공동경작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살림, 퇴임복지센터 등이 힘을 보탰고, 인근의 50여 가정이 함께 참여했다.

공동경작에 참가한 가정이 회비 5만 원을 내고, 모심기와 벼베기, 논두렁연

주회, 자연학교 등의 체험을 하는데다 추수가 끝난 후 ‘쌀 10kg’을 받았다. 물론 농사는 농약을 치지 않고 논

습지의 생물이 잘 살아도록 배려했다.

개구리들이 풀짜 뛰어노는 이 논을 ‘한새봉 개구리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개구리논 쌀에 ‘한새봉 햇살’이라는 상표도 붙였다.

참여한 분들 모두는 ‘개구리 논’ 덕에

나고 문의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개구리 논에서 함께할 식구들이 늘어날 거라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도시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어보고, 농약을 치지 않은 논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런 생물들이 논을 살리고 벼를 키운다는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재미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논과 쌀의 귀중함, 농부의 땀방울 없이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직접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벼 농사 배추 농사를 지어도 제값받기 힘들 때 알아맞는 농촌 현실에 마음이 아파면서도, 내년 모심기 날이 기다려진다는 한 엄마의 기대 어린 눈빛, 그리고 벌써 논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서둘름에 한새봉 개구리 논에 넘쳐날 웃음소리가 벌써 기다려진다.

〈한새봉 논두레 실립꾼·광주·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인터넷 쇼핑몰 개설자 신분확인 철저해야

물건값만 챙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나 많다.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하려면 웹 호스팅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팅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비용을 내고 거기에 쇼핑몰을 물려서 영업을 하면 된다. 이때 호스팅 서비스에 쇼핑몰을 개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해 둘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위로 제공하고 나서 쇼핑몰을 만든 뒤 거기서 돈만 받아 챙겨 달아날 경우 쇼핑몰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가짜 정보로 쇼핑몰 몇 개를 차례로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채고 환불 요구가 쏟아지면 쇼핑몰을 닫고 또 다른 쇼핑몰로 갈아타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원본으로 받고 신분증을 대조해 명확히 기록해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기고

이상태

지난 1년의 언론보도를 보면, 광주교육에 대해 ‘최근 5년의 수능 성적 전국 1위,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수능 1·2등급 전국 1위’라는 타이틀로 평가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를 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이상 자신이 져야 할 만큼의 의무는 다행히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개도국 모두가 앞으로도 높이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오히려 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정책에 적극적인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주도적인 국가가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를 통해 이미 인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에 서있게 될까?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이 세계 9위임

‘실력 광주’는 준비된 것이었다

교단 선진화 및 정보화를 기반으로, 우리 광주학생들은 이미 현실공간과 가상 공간의 간극을 좁히는 유비워터스 컴퓨팅 단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다른 지역에 이 통합논술의 출격에서 당황할 때, 광주는 ‘독서 생활화’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배경으로 교과 연계 수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 바 있다. 광주 ‘독서 마라톤’의 열기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감히 모방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링듯, ‘교육 1등 광주’의 신호 속에는 정보화 기반 속에서 독서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신장 교육의 성과가 진하게 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성과만으로도 안 벗어나는 교육부 장관에게 ‘5년 연속 수능 1위를 달성한 토대 위에 계속적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시책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내놓은 청사진 중 가장 획기적인 안’이라며 “광주 교육의 한 수를 배우고 싶다”고 심정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학생들이 생활체육과 함께하여 ‘체육지도(體德智)’를 도모하는 모습, 재능 진단을 통해 진로를 정의적으로 열어가는 모습, 인성적 기반 위에서

‘실력 광주’를 뽐내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학생 잠재력을 계발하는 광주교육에서 미래 인류 교육의 방향을 발견한다”라고.

“u-러닝 교육도시 추진 project 성과 발표회” 기조강연에서 신 천재의 성공 공식을 ‘타고난 재능+부단한 노력+우호적 주변 환경’으로 정의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호적 주변 환경’으로, “개인을 환경에서 분리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성공의 방정식을 밟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들어서는 순간 정서적으로 차분해진다”, “냉난방이 완비된 편안한 환경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었다” 등의 말처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창의력을 신장할 토대가 마련되는 법이다.

“좋은 시험 성적과 등수는 첫 번째 직업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이후 40년간의 생활까지는 지탱해주진 않는다”로 버트 라프린 전 카이스트 총장이 한 말이다.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 체제를 비판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광주학생들이 생활체육과 함께하여 ‘체육지도(體德智)’를 도모하는 모습, 재능 진단을 통해 진로를 정의적으로 열어가는 모습, 인성적 기반 위에서

‘실력 광주’를 뽐내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학생 잠재력을 계발하는 광주교육에서 미래 인류 교육의 방향을 발견한다”라고.

〈서울대 문용린 교수〉

無等鼓

소비에 관한 이론 가운데 ‘백로효과’(白鶲效果)가 있다. 1950년 미국의 학자 하비 라이벤스터인이 발표한 경제 이론으로 이론바 ‘명품브랜드’ 소비에 서 흔한 현상이다.

증 많은 사람이 좋아할수록 그 상품에 수준은 은행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은행 대출금리는 연평균 5.6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p 내렸지만, 저축은행은 12.08%로 0.05%p 높았고, 신협과 단위농협은 4.66%로 0.41%p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 격차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여 이익을

하는 최고 가산금리를 3.2~3.79%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단기 3개월짜리 CD 금리가 지난 11일 기준 2.7%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를 이보다 1%p나 높은 은행권이 최근 금융시장 사정이 나아졌는데 가산금리를 과거 올릴 때처럼 내리지 않고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기조를 ‘서민과 고용’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구호를 서민들이 부담되거나 고용권이 이 같은 부조리로부터 바로 살아야 한다. 금융위기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수요는 늘었지만 은행에서 박대를 당한 서민들이 제2 금융권에서 은행보다 1.5~6.5%p 비싼 이자를 감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동한 시장화를 통해 서민들을 ‘봉’으로 삼는 안 일한 영업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브랜드



브랜드 효과는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 갔더니 한정상이 ‘당신 네티이가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30달러인데 여기다 이탈리아 브랜드를 붙이면 150달러가 된다”고 말하자 옛날에는 10달러였는데 30달러로 올랐

고 얼마 안 있으면 200달러로 올라간다”고 응수했다”고 전했다.

국가브랜드 차이가 업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일화다.

우리나라는 이미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치른 국가다. 높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이상은 갖춰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암에서 세계적인 스피드 축제인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기대회, 2015년에는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돼 있다. 국제 행사를 활용하게 차려내야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백로’가 될 수 있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舉辦社長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 (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안내 222-4918 (